‘축구 명가’ 뮌헨 폭염보다 뜨겁게 제주 달궜다

4일 제주SK FC와 친선경기
김민재 주장 완장 달고 선발
접전 끝에 뮌헨 2-1 신승
관중 2만2000명 ‘문전성시’

지난 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우디 풋볼 써밋 2026 제주SK FC vs FC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 제주 공격수들이 뮌헨의 골문을 공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도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꼽히는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제주도를 찾아와 폭염이 무색한 축구 열기를 끌어냈다.

K리그1 제주 SK와 바이에른 뮌헨의 아우디 풋볼 서밋 친선경기가 열린 4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는 공식 집계 기준 2만2519명이 들어찼다.

뱅상 콩파니 감독이 이끌고 한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활약하는 뮌헨은 토트넘(잉글랜드)과 경기를 치른 2024년 이후 2년 만에 프리시즌 투어로 한국을 방문했다.

제주도에서 열린 축구 경기로는 가장 이름값 높은 유럽 팀이 방문하면서 제주도 안팎에서 많은 팬이 몰려들었다.

경기장 인근 호텔엔 빈방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후 8시 시작하는 경기 한참 전부터 주변 식당과 카페 등에도 축구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눈에 띄었다.

시작 3시간여 전부터 제주와 뮌헨 유니폼은 물론 한국이나 독일 국가대표팀, 두 팀과 전혀 관계없는 클럽의 유니폼 등 다양한 복장의 팬들이 경기장으로 모여들었다.

메인 광장 입구에는 두 구단의 엠블럼 조형물이 나란히 놓여 팬들을 맞이했고, 광장에 늘어선 돌하르방은 제주와 뮌헨의 상징이 절반씩 들어간 머플러를 둘러 친선경기의 의미를 살렸다.

최고 기온 35℃ 안팎의 ‘찜통더위’에도 뮌헨의 트로피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은 수십 명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일 수 있는 ‘비어가든’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헤르베르트 하이너 바이에른 뮌헨 회장의 동반 시축으로 시작된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한 양상으로 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주장 완장을 달고 뮌헨 선발 수비수로 나선 김민재에게 단연 가장 큰 환호성이 나왔고, 전반 37분쯤 김민재가 조기 교체돼 나갈 때도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다.

하프타임엔 제주에서 뛰다가 최근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 이적이 발표된 골키퍼 허재원의 입단행사도 열렸다.

이날 경기장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영표 혁신위원 등 유명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경기에선 뮌헨이 2-1 신승을 거뒀다. 전반 뮌헨의 필리페 차베스, 제주의 이창민이 한 골씩을 주고받은 뒤 전반 41분쯤 바스티안 아소모가 결승 골을 뽑아냈다.

김민재를 비롯한 뮌헨 선수들은 ‘감사합니다 DANKE(독일어로 ‘감사합니다’)’가 적힌 걸개를 들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했고, 제주 선수들도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연합뉴스

KBO 오늘까지 폭염으로 전경기 취소

관중 온열질환에 긴급 회의… 후반기 경쟁 셈법 복잡

맹위를 떨치는 폭염 앞에서 프로야구가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프로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폭염 긴급 대책 회의를 6일 열어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리그 운영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인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에서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한 관중이 쓰러져 들것에 실려 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자 안전 우려가 커졌다.

결국 장기 종합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5~6일 프로야구 1, 2군 전 경기를 열지 않기로 했다.

‘가을 야구’ 출전 경쟁팀들은 경기 취소에 따른 셈법에 머리가 아프다. 다음 달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많이 파견하는 팀일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경기가 팀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

먼저 후반기 페이스가 좋지 않은 LG 트윈스는 전력을 추스를 시간을 벌었다.

생전 처음 겪는 찜통더위에 크리스 페덱, 오스틴 보스 두 투수가 고전한 2위 삼성 라이온즈도 취소가 반가울 법하다.

후반기 8승2무4패를 거둬 LG를 1.5경기 차로 쫓는 4위 두산 베어스와 5위 KIA 타이거즈는 아시안게임 변수를 걱정하고 있다.

두산에서는 마운드의 원투 펀치 곽빈과 최민석, 젊은 거포 박준순이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나간다. KIA에서도 거포 김도영과 발 빠른 외야수 박재현, 투수 성영탁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7월 31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6일까지 폭염으로 5경기를 내리 쉬어 다른 팀보다 더 긴 방학에 들어간 KIA는 9월 이후 그만큼 경기를 더 치러야 해 빡빡한 일정을 마주하게 된다.

선발과 구원의 핵인 투수 소형준, 오원석, 박영현을 국가대표로 보내는 선두 kt wiz도 국가대표팀 소집이 예상되는 9월 13일 이전까지 두산, KIA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아야 한다. 연합뉴스

축구대표팀 9월 에콰도르·우루과이와 대결

24·28일 경기… 임시감독 체제

축구 대표팀의 9~10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 친선경기 상대가 모두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국가대표팀이 오는 9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에서 남미의 에콰도르, 우루과이를 상대한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4일 에콰도르와 대결한 뒤 28일 우루과이와 맞붙는다.

이어서 이미 발표한 대로 10월 2일 베네수엘라, 6일 우즈베키스탄과 격돌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은 한국은 임시감독 체제로 이번 친선경기를 치른다.

에콰도르는 FIFA 랭킹이 25위로 한국(32위)보다 위다.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 18경기에서 단 5실점만 하며 10개국 중 아르헨티나에 이어 2위로 본선에 올랐다.

A매치 일정 안내. 대한축구협회 제공

우리나라와는 역대 두 차례 맞붙어 1승 1패를 기록했다.

최근인 2010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는 한국이 2-0으로 이겼다.

FIFA 랭킹 20위 우루과이는 전통적인 남미 강호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10경기를 치러 1승 2무 7패를 기록했다.

최근인 2023년 3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도 1-2로 패했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세 차례 맞붙어 1무 2패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9~10월 A매치 4경기 개최 장소와 킥오프 시간은 현재 협의 중으로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징계 끝’ 고우석, 마이너 복귀전 1이닝 무실점

5일 복귀한 고우석. MLB 제공

이물질 사용 금지 위반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2경기가 감경된 고우석이 복귀전에서 호투했다.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플A 세인트 폴 세인츠 소속의 우완 불펜 고우석은 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CHS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신시내티 레즈 산하 루이스빌 배츠와 홈 경기에 팀 네 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그는 11-5로 앞선 8회초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안타 없이 볼넷 1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선두 타자를 범타로 처리한 고우석은 윌 벤슨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후속 타자 마이클 차비스를 병살로 유도하며 임무를 마쳤다.

그는 이날 17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3㎞를 기록했다.

올 시즌 빅리그를 밟은 고우석은 지난 달 21일 트리플A로 강등됐고, 25일 콜럼버스 클리퍼스(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산하)와 홈 경기에서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고우석은 “이물질은 땀과 로진이 반복적으로 엉키고 가죽에 굳어 형성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선수노조를 통해 항소했다. 이후 징계는 8경기 출전 정지로 감경됐다. 연합뉴스

전세기로 떠나는 편안한 해외여행

★★ 영업배상책임보험 10억 가입 ★★

제주직항전세기
몽골(4박5일)
출발일 : 8/9 8/13, 8/17, 9/23
패키지 1,590,000원
주요일정 몽골 노마닉전통체험, 칭기스칸 마동상, 테를지 국립공원(거북바위, 아리야발 사원) 초원승마, 자이승전망대, 간단사원

제주직항전세기
백두산(연길/3박5일)
출발일 : 8/7
패키지 1,290,000원
주요일정 백두산북파코스 (장백폭포,노천온천지대), 서파코스(금강대협곡), 일송정, 윤동주생가

제주직항전세기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 : 10/8, 10/11, 10/14, 10/17
패키지 1,290,000원
주요일정 보봉호수(유람선포함), 천문산사 + 귀곡잔도+유리잔도, 전신마사지, 황룡동굴, 천문호선쇼, 천자산 케이블카, 원가계 백룡엘리베이터, 72기루, 금편계곡

제주직항전세기
베트남 다낭(3박5일)
출발일 : 11/19, 12/31
패키지 1,290,000원
주요일정 대성당, 67미터 해수관음상(영응사), 미케비치, 마블 마운틴, 투번강 투어, 호이안 옛시가지관광, 바나산 (골든 브릿지,고성체험)

2026년도 제주직항 전세기운용 일정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8차) : 5/7, 5/10, 5/13, 5/16, 10/8, 10/11, 10/14, 10/17
연길(백두산)(3박5일)
출발일(7차) : 7/20, 7/23, 7/26, 7/29, 8/1, 8/4, 8/7

몽골 울란바토르(4박5일)
출발일(8차) : 6/17, 7/15, 8/5, 8/9, 8/13, 8/17, 9/23

필리핀
마닐라(4박5일)
출발일(9차) : 3/28, 4/1, 4/5, 4/9, 4/13, 12/17, 12/21, 12/25, 12/29

일본
이즈모(돗토리/2박3일) : 7/10

베트남
다낭(3박5일) : 11/19, 12/31

공통사항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유류항증료, 공항이용료,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 불포함내역 : 부가세, 가이드 · 기사봉사료, 싱글차지, 매너팁, 선택관광경비, 기타개인비용 · 최소출발인원 10명기준 · 4성(준4성)이상 2인1실 ·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가입, 여행자보험 2억가입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전세기 전문여행사 Tourist Information Service 여행정보서비스 T. 064)746-690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90호 제주시 연북로 92 진현빌딩 1층

에이투 T. 064)742-799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336 제주시 연북로 92 진현빌딩 1층

» 여행정보서비스 바로가기